



품목별 농산물포장화 문제점과 대응책

무·배추포장화는 산지, 도매, 유통전단계 합리화를

대아청과 주식회사
전무이사 이정수

1. 서 언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민소득증대,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 등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UR협정 타결과 WTO출범에 따른 국내 유통시장의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산물의 상품적기능 제고와 유통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단체들은 농산물 유통채널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안기금의 확대지원, 포장센터 및 간이집하장 건립 등 각종 사업과 투자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농산물 유통조성기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포장규격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왔으며, 경매제도 시행과 더불어 과일류 및 일부채소류의 포장화사업에 있어 큰 성과를 보았으나, 무·배추 등과 같은 일부 농산물의 경우,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포장화 사업이 추진된바 있다.

이렇게 정부가 무·배추 품목 등에 대한 포장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의 보존성을 높여주고,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증가시켜 가격효율성을 높여주고 각종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중요한 품질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직접상품을 검사하지 않고도 통명거래 또는 표본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비용을 크게 감축시켜 주는 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무·배추 등의 채소류 포장규격화 도입초기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오랜 관행에 따른 거래행태, 정부의 강력하지 못한 정책추진 등 문화적, 정책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었으나, 현시점에 비추어 각 유통단계별 제반여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재 점검해 보고 개선방향에 있어서도 첫출하단계인 산지출하단계부터 최종단계인 소비단계까지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무·배추 포장규격화의 추진현

우리 농산물에 대한 포장규격화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초 농협자체 포장규격을 개발하여 규격상자 보급에 주력하기 시작할때 부터이며, 이후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는 주로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전까지 실시된 포장규격화는 실제 유통시장 거래와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으므로 실용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 1983년1월 농산물23개, 축산물4개, 수산물10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표준거래단위」를 제정·고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10월 현재 총61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을 규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6월11일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정부가 포장규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향후 포장규격화 정착시 농산물 유통과정상 (1) 경매시간의 단축, (2) 신선도 유지, (3) 물류흐

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채소품목의 유통단계별 표준규격화 실태를 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단가인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과실류나 고단가의 일부 채소류의 경우는 산지에서 선별·포장을 거친 후 소비지의 도매시장이나 위탁상으로 출하되는 물량이 정착단계에 있으나, 저단가의 배추·무 등 일반 채소류의 경우는 대부분 수확직후의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덮개가 없는 트럭에 적재되어 도매시장에 출하된 후 다듬기 작업을 거쳐, 단으로 묶어 소매단계로 넘어가는, 농산물 포장규격화의 담보상태를 견고 있다. 따라서 산지, 도매, 소매단계 등 각 유통단계마다 상·하차 하역 작업과 소비지에서 쓰레기 처리작업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농산물 포장규격화의 조기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3. 무·배추 포장규격화의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산지유통단계

최근 무·배추 품목 등 포장규격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취약한 부문이 『산지출하단계』라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관계자들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산지단계에서의 포장규격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와 개선방향을 크게 몇가지 살펴보면

가. 출하규모의 영세성

우선적으로 생산자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무·배추 등의 품목을 출하하는 농민의 출하규모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개별 농가의 영세한 출하형태로는 효과적인 포장규격 출하를 추진하는데 있어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산지단계의 포장작업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을 주산단지화하고 생산자간에 공동출하·공동계산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여 농민의 출하단위를 규모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주산단지의 공동출하·공동계산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포장규격출하품의 적정가격형성의 불확실성

초기 포장출하를 시행함에 있어 출하자들은 비용증가분 이상의 수익이 기대될 때 비로소 포장출하를 하게 되나, 현재 상품가격대비 포장비용 및 운임비용, 인건비 등이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포장출하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수익이 중간상인이 아닌 생산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 산지유통시설의 부족과 노동력의 부족

현재 49개의 농산물포장센터가 개설되어 있지만 산지매취를 위한 운영자금의 부족과 가동율의 저조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농에 의한 노동력 빈곤화·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원활치 못한 농촌의 노임이 도시에 비해 비싸며,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생산자의 산지제반유통활동 직접참여를 제약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산지수집상이 생산자의 역할을 지배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에 의한 산지유통시설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가 확충되어야 한다.

라. 실제 포장출하규격과의 상이함

현행 정부가 고시한 포장출하규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실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출하규격과의 상이함에 있다. 즉 출하자가 포장규격 출하를 지키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산지에 따라 농산물의 크기와 무게가 다르며, 구입자에게 양이 더 많아 보이도록 하려는 데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포장치수가 상품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포장규격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포장규격이 실용화되기 위한 산지 및 도매시장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포장출하규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생산자의 인식제고

포장규격화에 대한 출하자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유통체계의 미성숙에 따른 상관행과 거래제도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특히 무·배추의 경우 대부분의 출하자가 수집상이어서 포장출하가 될 경우 물량마진이나 등급마진을 취득할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들은 비규격상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산

물출하시와 마찬가지로 출하자 인식부족에 의한 잦은 속박이로 인해 포장출하 정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출하자 스스로의 인식제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경매 활성화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출하자의 정보부족, 중도매인에 대한 불신감, 품목별 포장자재의 부적절성 등 포장규격화를 시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도매유통단계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포장규격화하여 출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산지단계에서는 포장비, 작업비, 수송비, 하역비 등이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도매시장 내에서는 청소비 및 선별비와 유통중 감모 등이 비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 유통비용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

1) 허길행·조명기. 1995.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연구』

가. 적정가격유도를 위한 제반조건 열악

출하자가 포장출하를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정가격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경매과정상 불안정한 가격형성으로 인해 출하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포장출하품에 대한 중도매인의 판매처 미확보, 품목별 중도매인의 부족과 영세성, 잦은 속박이로 인한 출하자에 대한 불신감 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하자 및 중도매인간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마련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 행위자(경매거부, 담합경매자 등)에 대한 단속규정이 미흡하고 아직까지도 불공정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포장규격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포장출하품에 대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도매시장내 포장출하품에 대한 제반수수료 조정(포장품 및 우수출하주에 대한 수수료 차등화, 하역작업의 파렛트

및 기계화를 통한 하역료의 차등화 등) 및 거래제도의 개선책(포장출하품 우선 경매제 및 우대제, 경락후 산물출하품에 대한 재포장 및 선별·정선·다듬기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 마련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아 시행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 중도매인의 인식부족

일본의 경우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포장규격화를 정착 시키는데 있어 중도매인들은 포장품에 대한 높은 경락가격과 상대적으로 산물출하품에 대한 낮은 경락가를 제시함으로써 출하자의 인식을 제고시킬수 있었으며, 조기에 포장규격화를 정착시킬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도매인들의 포장규격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참여만이 포장규격화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소비 유통단계

산지에서 포장화하여 출하된 물량이 적정가격에 의해 중도매인에게 경락된다 하더라도 이를 선호하는 소비자와 분산할 소비망이 없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으로 이의 대책과 한편, 골판지박스 사용시 쓰레기종량제 등으로 인한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골판지상자는 사용후 100% 재활용되어, 오히려 원료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저의 계도가 필요하다.

(주2 : 과일류 및 저장성 있는 채소류(장기소모품목 또는 저장성품목)등은 포장단위의 소비가 정착되었으나, 배추와 같은 단기소모품목 또는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포장단위의 거래가 미진함.)

특히 일반 제조품에 대한 소비자가격 결정에 대한 인식보다 농산물 소비자가격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절대 인식부족인 현재 포장화에 따른 가격상승은 더욱 소비자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겠으며, 소비자들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 없이는 농산물 포장규격화는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는 없다 하겠다.

4) 기타 제반여건

가. 특정 도매시장을 대상으로한 부분적 시범사업의 한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포장규격화 사업의 경우 강력한 정부방침에 의한 전농가와 전도매시장을 대상으로한 제도적

시행이 아니라 일부 출하자와 특정 도매시장을 대상으로한 시범적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이는 포장규격화를 위한 상당한 인력과 비용, 시간 등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에 큰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포장규격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물류작업의 표준화 및 기계화

품목별 포장규격화와 함께 차량별 적재치수, 품목별 파렛트 치수 등이 동시에 표준화되어 산지 출하단계에서의 차량적재뿐만 아니라 하역작업에 이르는 모든 작업이 모두 기계화 되어 포장규격화 사업과 병행되어야 하나, 단순한 포장규격화만을 추진한다면 전체적인 물류비용은 증가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정착하기 위한 물류작업과정의 표준화와 산지단계에서의 상차작업의 기계화, 도매시장내 하차 작업의 기계화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포장자재 선택

포장자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품목과 운송조건에 따라 자재의 내장력과 견고성, 재사용의 가능성, 가격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배추포장화 사업에 사용된 일부 골판지상자의 경우 습기를 흡수하거나 비가 올 경우 밑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배추·무 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플라스틱 박스의 경우는 불특정다수의 산재된 출하처에서 회수 및 관리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산지와 도매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습기에 강한 재질의 골판지 상자로 보완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연구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결어

현재 추진중인 무·배추 등에 대한 포장화의 중요성과 조기정착이 유통주체간에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와 각종 연구와 모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의 포장규격화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포장규격거래를 위한 각종 유통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유통주체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한 포장화 사업 추진은 특정지역이나 도매시장

에 국한된 시범사업 차원이 아닌 국가적사업의 일환으로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포장규격화에 따른 비용 이상의 적정수익을 출하자에게 보장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포장규격화 사업은 상품의 보존성을 높여주고 정보의 정확성을 증가시켜 가격효율성 등을 높여주는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물류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포장만을 한다면 물류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수 밖에 없으며, 포장규격화에 따른 차량별 적재치수, 품목별 파렛트 치수 등의 표준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만이 물류과정상 기계화작업을 통한 비용감소로 물류효율화를 극대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에서 (1) 생산자간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을 위한 품목별 주산단지화와 출하단위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2) 초기 도입단계에서의 적정가격보장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3) 정부투자에 의한 산지유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4) 실제 시장거래에 활용할수 있는 포장규격의 재정비, (5) 출하자의 인식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포장출하된 물건의 가격이 최초로 형성되는 도매시장내에서는 우선적으로(1) 적정가격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 포장출하품에 대한 판매처 확보와 품목별 중도매인의 확보등 적정가격형성을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3)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마련 (4) 포장출하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5) 중도매인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참여 등을 통해 포장화 유통은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골판지상자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포장자재를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포장재의 공급지원체계 확립, 정부지원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과 유통주체간 인식전환을 통해 유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